

[소개합니다] “대학·기업·국가가 융합된 살맛나는 미래를 연구한다” - 한경국립대학교 평택캠퍼스 산학협력단 -

평택신문 | 승인 2024.04.11 21:07

산업체 재직자 반도체 공학 정규학위 취득과정 운영
기업체 현장실습을 통한 실무능력 강화 및 인력 확보
장애인대학생 취업역량 교육 및 맞춤형 일자리 창출

바야흐로 융합과 협력의 시대이다. 먹고 살기 힘든 시절에야 '사자' 직업을 내세워 군림하며 사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기도 했지만 지금이야 어디 그런가. 크고 작은 일들이 서로 얽혀 있어 싫든 좋든 함께 비비며 살아가는 것만이 생존의 유일한 해법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이야기를 좋아하는 인간의 속성을 활용하여 스토리텔링이라는 새로운 분야가 생겨나고, 인간의 움직임을 연구하여 인간의 일을 대신하는 로봇이 만들어졌다. 모두 학문의 융합과 기술 협력으로부터 비롯된 성과이다. 이와 함께 대학은 '학문의 장'이라는 본연의 역할에만 머무르지 않고 좀더 가치 있는 공공의 삶을 만들어 내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실천해 왔다. 그 중심에 산학협력단이 있다.



대학에 닥친 위기, 기업과의 상생으로 해결해야

산학협력단은 대학이라는 특수성을 살려 인재를 양성하고, 이들이 갖춘 기술을 바탕으로 사회에 이바지하게 하는 교두보적 역할을 하고 있다. 산학협력 제도를 통해 대학은 더 이상 이론적 지식을 연구하는 터전이 아닌 행동하는 학문의 장으로 변모되었다. 언제부터인가 각 대학에서는 산학협력단을 만들고, 연구자를 양성하여 기술혁신 등 경쟁력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지자체나 산업계와 협력기반을 마련하여 협업해 왔다. 혹자들은 이러한 현상을 대학과 사회가 효과적으로 상생하는 방안이자 학력인구 감소로 인해 대학에 닥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자구책이라고도 할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대학이나 기업이 협력하지 않고는 생존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평택에도 크고 작은 대학들이 자리 잡고, 나름대로 시대가 안고 온 대학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을 것이다. 한경국립대학교 평택캠퍼스 산학협력단은 이러한 변화에 맞서 가장 평택스러운(?) 프로젝트 기획을 추구하고 있는 유일무일의 대학 기관이다.



반도체 전문가 육성을 위한 반도체 공학과 신설

평택은 도시개발이 급속화되고 있는 대한민국 최고의 중심 지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서일까.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육해공의 주요 군사기지와 세계 최고의 최첨단 기술을 자랑하는 대기업은 물론 크고 작은 기업들이 자리 잡고 있다. 특히 삼성전자가 평택에 터를 잡으면서 명실공히 반도체 산업의 핵심 지역으로 그 위상이 굳건해졌다. 한경국립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이러한 평택의 실정을 반영해 지역과 지역민의 미래를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하고 있다. 한경돈 산학협력팀 분단장은 "저희 한경국립대학교에서는 반도체 공학과 3학년 편입과

정을 신설했습니다. 현재 평택에는 많은 기업들이 반도체 관련 일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같은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전문대졸이나 고졸 학력을 가진 사람들을 채용하고 있지요”라며, “이들 중에는 학업을 계속하여 좀더 전문적인 지식을 쌓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대학에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학과를 개설했지요”라고 말한다. 이를 위한 장학제도 마련도 빼놓지 않았다. 산업체 재직자 정규학위 과정인 반도체 공학과 3학년에 편입하면 50%의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중소기업 재직자 중 석사과정에 입학하는 학생은 등록금의 65%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인재양성과 일자리창출을 위한 연계 과정 운영

한경국립대학교 산학협력단은 한경돈 분단장을 비롯하여 산학협력 중점 교수인 반도체 전문가 유광동 교수와 임찬종 팀장, 4명의 팀원이 땀을 쏟고 있다. 유광동 교수는 20여 년 넘게 삼성전자에 재직하면서 반도체 기술과 관련된 이론적 지식은 물론 활용방안, 특화분야까지 습득한 반도체 기술의 일인자이다. 한경국립대학교에서 유 교수를 영입한 이유는 대학과 기업 간의 유기적 연계 협력을 위한 최고의 책임자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특히 유 교수의 기업체 근무 경력은 대학과 기업의 긴밀한 관계 맺기에 적잖은 힘으로 작용할 것이다. 유광동 교수는 대학의 산학협력 역할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말한다. “우리 산학협력단은 반도체 기술과 관련된 크고 작은 기업들을 모두 포괄하여 프로그램을 기획, 구상하고 있습니다. 평택에 삼성이 들어와 있다고는 하나 삼성 혼자서 세계 최고의 회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삼성을 뒷받침해 주고 있는 많은 중소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요”라며, “그들을 위한 대학의 역할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생계를 위해 학업을 계속할 수 없었던 많은 사람들이 우리 학교에서 꿈을 키우고 전문가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고 싶습니다”는 말과 함께 “그 중심에 미래기술학교가 있습니다”라고 말한다.



교육만큼 중요한 일은 노력을 인정하는 사회 풍토

미래기술학교는 한경국립대학교와 평택시가 협력하여 만든 과정으로 반도체 분야에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단기과정이다. 한 달 과정으로 운영되는 미래기술학교는 교육 희망자들이 반도체 기초과정을 수료하면 반도체 관련 업체에 취업을 연계해 주는 반도체 공정 및 제조인력 양성 과정이다. 산학협력이 안정화된 인근 안성 시에서는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하여 전통시장 상인교육 및 상품 개발에도 힘 쏟고 있으며, 반도체 인력양성센터를 운영하여 반도체산업 재직자들의 직무능력 향상 교육을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만큼 중요한 일이 취업으로의 연계일 것이다.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고졸이나 전문대졸 학력의 직원들이 대학 졸업장을 취득한 후 이직을 하게 되면 기업이 입을 타격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나 지자체, 지역사회가 함께 해결책을 고민해 보아야 한다. 유광동 교수는 “개인이 더 나은 직장을 찾아 이직하는 것을 대학이 관여할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반도체 분야에 종사하는 대부분의 기술자들은 근무 연차가 오래되어 이미 대졸이상의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 대졸 대우를 받겠다고 이직을 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한다. 기업이 대졸 자격보다 끊임없이 공부하고 노력하는 일에 가치를 둔다면 돈 몇 푼에 회사를 등질 사람이 있겠는가.

지역민 모두가 발전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기획

한경국립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반도체 분야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산학협력 업무의 베테랑인 임찬중 팀장은 “저희 대학에서는 산학을 통한 많은 일들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반도체 인재 양성은 물론, 안성의 성공을 거울삼아 지역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해 중증 장애인 취업역량 강화와 취업연계, 노인 일자리 창출이나 다문화 문제 등도 고민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한다. 임 팀장에 이어 한경돈 부단장은 “특히 평택은 다문화인들이 많은 지역입니다. 실재 평택의 많은 기업들이 외국인 근로자들을 채용하고 있구요. 이들에게 한국기업에 맞는 전문적인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면 단순노동에만 종사하던 외국인 근로자들의 가치를 높이고 생산인력 부족으로 인한 국가적인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라며 미래의 대안까지 언급한다.

대학과 지자체 기업 간의 네트워크 구축과 협업은 미래 사회의 필수 불가결한 요소가 되었다. 대학이 모든 것을 기획하고 책임질 수 있다면 좋겠지만 인구감소로 인한 대학의 위기는 경제적 어려움을 뛰어넘은 지 오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학과 기업 간의 인적·물적 자원의 교류가 절실하다. 대학은 인재를 양성하여 기술을 교류하고, 기업은 기술을 현실화해 일자리 창출로 실현하는 상생 협력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동반 성장하는 그날까지 한경국립대학교 산학협력단의 행보를 응원한다.

이창복 기자 usually124@naver.com

한경국립대학교

산학협력단 (경기도 평택시 삼남로 283)

031-610-4640



평택신문 iptnews@naver.com